



독서율 감소, 독서량 양극화

글 | 백원근

- 위의 사진은 20만 부 넘게 팔리는 대중적인 출판정보지 <다빈치> 주최로 책벌레 5천 명이 뽑은 2003년도를 대표하는 책 리스트. 250만 부 판매로 2003년 최고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바보의 벽》은 리스트의 종합 3위에 올랐지만, 이 책은 에세이·논픽션 분야 1위, 제목이 뛰어난 책 1위 등 화제를 독점했다.



• 마이니치신문의 독서여론조사 기사.

‘조사의 나라’인 일본의 독서실태 조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이니치毎日신문이 주관하는 <독서여론世論조사>와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독서조사>이다. 매년 9월에 시행하는 이 두 가지 조사는 전자가 57회, 후자가 49회째를 기록할 만큼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한다. 일본인의 독서좌표를 보여주는 2003년도 조사결과를 살펴보자.

<독서여론조사>는 전국의 16세 이상 남녀 4,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 결과의 특징은 독서율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평균 독서량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독서 인구는 줄었지만, 읽는 사람은 보다 많은 책을 읽는 현상이다. 우리처럼 독서량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독서율부터 살펴보면, 지난 한 달간 도서를 ‘읽었다’는 비율은 43퍼센트로 전년보다 12퍼센트 포인트나 줄었다. 잡지 독서율은 58퍼센트로 전년에 비해 9퍼센트 포인트 격감했다. 반면 월평균 독서량은 단행본이 0.9권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문고·신서가 0.6권으로 0.1권 줄었다. 단행본과 문고·신서를 합한 월평균 도서 독서량 1.5권은 한국의 1.2권(2002년 말 한국출판연구소 조사)보다 여전히 높다. 만화책 독서량은 월평균 0.9권으로 전년 대비 변화가 없으며, 잡지 독서량과 비디오 관람 편수는 증가하였다(〈표〉 참조).

〈표〉1개월 평균 독서량 및 비디오 관람 편수 (단위 : 권, 편)

| 연도 | 단행본 | 문고·신서 | 주간지 | 월간지 | 만화책 | 비디오·DVD |
|------|-----|-------|-----|-----|-----|---------|
| 2002 | 0.9 | 0.7 | 1.2 | 0.7 | 0.9 | 1.1 |
| 2003 | 0.9 | 0.6 | 1.4 | 0.8 | 0.9 | 1.2 |

하루 평균 도서(단행본, 문고·신서) 및 잡지 독서시간은 52분으로 전년(48분)보다 증가했다. 연령별·성별로 독서시간이 가장 많은 세대는 20대 남성(1시간 12분)과 10대 후반 여성(1시간 22분)이었다. 도서에 한정하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24분(전년 29분)이고, 잡지는 28분(전년 19분)으로 도서 독서시간은 줄고 잡지는 증가하였다.

한편 하루 평균 신문 열독시간은 39분으로 전년 대비 8분이 늘었으나, 신문을 ‘읽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오히려 3퍼센트 포인트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젊은층일수록 신문 열독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기타 텔레비전은 시청률 94퍼센트(전년 96퍼센트), 하루 평균 시청시간 2시간 59분(전년 3시간 1분)이었으며, 라디오의 청취율은 40퍼센트, 하루 평균 청취시간은 49분으

로 각각 나타났다. 주로 읽는 책의 장르에 대해(복수 응답) 일본 독자들은 취미·스포츠(38퍼센트)를 1위로 꼽았는데, 이는 지난 1997년 이래 변화가 없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의료·복지(22퍼센트), 생활·요리·육아(22퍼센트) 등이 이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실생활 관련 도서가 인기를 모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선호 도서로 꼽힌 것은 일본 소설(20퍼센트), 논픽션(13퍼센트), 역사·지리(11퍼센트), 경제·산업·금융(10퍼센트) 등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인터넷서점 이용실태이다. 인터넷서점 이용률은 9퍼센트(전년 7퍼센트)로 한국보다 3퍼센트 낮다. 하지만 20대와 30대는 15퍼센트가 넘는다. 이용 이유로는 매장(오프라인) 서점에 비해 재고나 영업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편리함이 꼽힌다. 인터넷서점 비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이용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는데, 무려 74퍼센트가 ‘없다’고 응답해 이채롭다. 100퍼센트 정가제를 유지하는 일본은 우리처럼 할인경쟁도 없고, 전국 각지의 충실한 매장 서점의 인프라로 인해 인터넷서점의 급속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불황기 출판시장의 원동력, 신서·분책백과

〈독서여론조사〉는 매년 기본적인 조사 이외에도 이슈가 되는 주제를 정해 집중조사를 하는데, 이번 주제는 ‘신서新書’와 ‘분책백과分冊百科’였다. 신서는 문고본보다 조금 크고 일반 단행본보다는 작은 중간 판형으로 주로 교양·시사 분야 독서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포켓북이다. 분책백과는 유럽과 일본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분책分冊, partwork형 백과사전으로 비주얼한 취미·여행·스포츠·역사 분야가 주류를 이루는데, 최근 몇 년 간 창간러시를 이루며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분야이다. 한 가지 테마를 정해 보통 30~100회 정도로 나누어 주간 또는 월간으로 정기 발행한다. 전부 모으면 훌륭한 테마 백과가 된다. 분책백과는 이례적으로 TV광고도 왕성하고 각종 부록을 붙여 성인들의 컬렉션 욕구를 자극하는 등 침체 국면에 빠진 잡지와 비견되는 ‘뜨는’ 출판으로 자리잡았다.

먼저 신서 분야에서는 시리즈 창간 5년 이내의 비교적 신생 브랜드들이 인기 순위 상위권(3~5위)을 점령했다. 부동의 1위는 이와나미岩波신서, 2위는 고단샤講談社 현대신서, 3위는 슈에이사集英社 신서, 4위는 올해 창간됐음에도 《바보의 벽》이 250만부를 돌파하는 등 돌풍을 일으킨 신초新潮 신서, 5위는 분춘 신서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신서는 중년 이상의 남성 독자층 중심이라는 고정된 이미지가 있었는데, 슈에이사 신서의 경우는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 폭넓은 포용력을 과시했다.

한편 분책백과 구입률은 아직까지 9퍼센트에 머물러, 성장세에 비취볼 때 잠재시장이 아직도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서욕구가 높은 전후 베이비 붐 세대團塊世代 남성층이 주독자층. 구매자에게 구입 이유를 물어보니 실용성, 낱권 단위의 엮기, 사진 중

심의 비주얼함, 모으면 백과사전이 되는 컬렉션 재미 등이 있다는 응답이다. 분책백과 구입자 중 시리즈를 빠짐없이 모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35퍼센트)이 여성(22퍼센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구입하고 싶은 장르로는 취미·스포츠, 건강·의료·복지, 여행 등이 상위권으로 집계됐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휴대전화 때문에 책읽기가 줄었다는 통계이다. 휴대전화 사용 이후 ‘독서기회가 줄었다’는 응답이 6퍼센트로 나타났는데, 동일한 응답 비율이 1997년 2퍼센트, 2000년 4퍼센트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 11퍼센트 등 젊은 세대일수록 휴대전화로 인해 독서기회가 줄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휴대전화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인터넷, 이메일 송수신 등 기능 다양화가 독서량 감소를 부추긴다는 보고는 충격적이다.

복간復刊 관련 조사도 흥미롭다. “도서 구입시 재고가 없거나 품질로 인해 책을 사보지 못한 경험이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3명 중 1명 꼴로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고책방에서 찾는다’와 ‘읽기를 포기했다’가 각기 3퍼센트씩으로 나타났다. 도서의 품질이 독서기회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증하는 조사이다. ‘출판사나 서점에 바라는 점’으로는 ‘충실한 전문서 구색’ ‘과거의 화제도서 진열’ ‘품질된 명저의 복간’ 등이 지적되었다. 이는 1997년 이래 기노쿠니아紀伊國屋서점과 이와나미서점을 필두로 한 8개 출판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중인 ‘책의 복권書物復權’ 프로젝트나 주문형 출판(POD)이 보다 확대돼야 함을 시사한다.

‘아침독서’ 운동으로 초·중 독서량은 늘었으나...

마이니치신문이 (사)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협력을 얻어 전국 초·중·고 132개교, 1만2,6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독서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도서의 독서량은 늘어난 반면 잡지 독서량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1개월 평균 독서량은 초등 8.0권(전년 대비 +0.5권)으로 과거 최고 기록을 세웠고, 중등 2.8권(동 +0.3권), 고등 1.3권(동 -0.2권)으로 나타났다. 이에는 아침수업 전에 실시하는 10분 독서가 정착된 것이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그러나 교과서나 만화 등을 제외한 일반도서를 한 달에 한 권도 읽지 않는 책맹冊盲은 초등학생 9퍼센트(전년 대비 +0.4퍼센트 포인트), 중학생 32퍼센트(동 -0.9퍼센트 포인트), 고등학생 59퍼센트(동 +2.7퍼센트 포인트)가 넘어 ‘독서이탈’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지난 2002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데, 여가시간은 늘었지만 독서에 할애하는 시간은 오히려 줄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력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학교별로 기초학습을 강화하는 곳과 독서를 권장하는 곳으로 양극화된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잡지 독서량은 학교급과 무관하게 한결같이 감소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1개월 평균 초 4.8권, 중 4.3권, 고 3.7권), 이는 만화잡지의 히트 연재작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한다. 또 이번 조사결과, 학교와 가정에서 독서 권유를 받았는지의 유무에 따라 학생간의 독서량 편차가 심하다는 점도 밝혀져 어른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이 아이들에게 직결됨을 보여줬다.

오늘의 독서 환경은 책, 출판, 국가의 미래

1천만 부 발행부수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요미우리讀賣신문 역시 매년 가을철 독서주간에 독서 관련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2003년도 결과(10월 조사)를 보면, 눈길을 끄는 항목이 있다. “필요한 정보를 책이나 잡지에서 얻는 대신 인터넷만으로 충족하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20대는 ‘자주 있다’ 34.0퍼센트, ‘가끔 있다’ 25.5퍼센트, ‘거의 없다’ 9.6퍼센트, ‘전혀 없다’ 25.9퍼센트로 응답하였다. 전체 평균치보다 인터넷 의존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인터넷 세대의 독서 지형도가 드러난다. 도서 구입비가 1년 전에 비해 ‘줄었다’는 응답도 21.3퍼센트로 조사돼 ‘늘었다’ (9.0퍼센트)의 2배 이상이나 되었다. 속전속결의 문화에서 책과 독서의 위기론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그 모습은 남의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의 흉상에 닮아나이다.

독서실태는 출판 생태환경의 변화상을 짚어주는 지표이다. 전 세계적으로 영상매체,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독서율과 독서량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에 대항적인 각국의 독서정책이나 독서운동은 지식정보사회 진화의 적자 DNA인 독서의 아성 구축에 한결같이 나서고 있다. 이렇듯 출판의 미래가 걸린 문화적 길항掣抗의 전투에, 우리는 체계적인 작전이나 병력도 무기도 없이 나서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 전투 지형도인 독서실태 조사조차 부정기적으로 영세 연구기관(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에 의해 몇 년에 한 번씩 힘겹게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독서조사, 적극적인 독서운동, 독서정책의 삼위일체를 견지해 온 일본조차 어려워하는 요즘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 타산지석론’에 머물 것인가. ☐

- 이 글을 쓴 백원근은 현재 (재)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일본출판학회 정회원으로 일본 매스컴업체 주간지(文化通信)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002년 일본 문화청에서 주최한 <동아시아 출판문화 심포지엄>에 한국 대표로 참여했으며 펴낸 책으로는 번역서 《출판광고》 등이 있다.

